

##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에스겔 37:1-14, 마가복음 16:14-20

최정웅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도 청년 때는 같은 생각을 했다. 뭔가 많이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것을 해야 하는 복잡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요셉의 삶은 정말 단순한 삶이었다. 심플하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흔들리지 않다가, 언약대로 승리한 삶이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 너무 쉬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쉽다.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한다. 그 본질 21가지들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묵상해 왔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다. 21가지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삶으로 누리면 나머지 18가지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복음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초대교회는 한 가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로 시작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한 번에 누리는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거기에서 오는 한없는 기쁨이었다. 이 환희가 너무 커서,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산의 감사, 갈보리산의 집중, 마가더락방의 헌신을 할 수 있었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1)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참담한 절망적인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 사실 주님은 고난과 부활을 다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메시지를 기억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자기 원하는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못 붙잡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그건 안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산다는 말은 기억도 못 하고 생각도 못 했다. 아주 약간 믿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활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하면 곤란하니까, 군사를 보내 지키자' 했다. 그래서 성전수비대와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견고히 지켰던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2)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든 절망과 낙망과 부정적인 기대를 다 비웃으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메롱'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헛바닥을 살짝 내밀면서, (웃음) 죽었는데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그 메시지의 흐름을 못 알아들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왜 그런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3-4의 말씀이다.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셨다. 여전히 비어 있는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소식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흥분시켰다.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문제는 정말 끝났구나' 하면서 새 힘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다. 성찬식은 슬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회상하라는 것이다.

(3)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된

증거로 죽음이 인간에게 왔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결과, 그 모든 운명을 한꺼번에,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와 있던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다. 죽음도 이 말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33에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 일곱 랩넛트는 이 복음, 이 비밀을 그 신앙 속에 가지고 있었기에 승리했다.

### 2.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미션을 주셨다.

크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1) 오늘 신약 본문 16:15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미션은 만민이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증거하라, 만민에게 가라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편 사람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다. 주님의 시야는 처음부터 천하와 만민에게 있었다. 만민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주님 다시 사신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만민을 살려낼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가? 만민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것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인 것이다. 복음 가지면 다 끝나 버린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지 해야 한다. 복음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제 일곱 랩넛트다.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서니까 모든 것이 평정되어 버린다. 아무 문제도 없어져 버린다. 복음 없으면 성공해도 실패고, 돈을 가져도 망한다. 더 어려움에 빠진다.

(2)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운동의 미션을 감당할 방법도 알려 주셨다.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다. 치유운동을 일으키라는 명령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정신의 병, 육신의 병에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영적으로는 다 병들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뒤집는 운동이 치유운동이다. 우리교회에 이런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악령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란다. 누가 와서 기도해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이다. 미련함은, 가난은, 질병은 무너질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3) 세 번째 미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알고 계신다. 이 미션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이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았다. 기독교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것을 안 믿는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단의 세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 이름임을 알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 만에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신학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은사 종결론>이라는 것이 있다. 병 고치고 통역하고 방언하는 은사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있었고, 성경 기록이 완료된 다음에는 끝났다고 믿는 것이다. 회한하게도 한국에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은사는 종결되었다 하면서, 성령운동을 하는 조용기 목사는 이단이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나용화 박사님이, '은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유흥형 장로님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놓치니까 기독교가 나약한 종교처럼 되어 버렸다. 뒤집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귀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 가진 자가 복지를 하면 그 복지에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 복음을 주어서 영혼을 살려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 아이만 온전해져도 막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할머니 한 분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복음을 받고 영혼이 변화되면 막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지 전도를 하지 말고 전도 복지를 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 가진 자, 생명 가진 자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다. 노예로 가도 그 집이 변하고, 감옥에 가도 감옥이 변하고, 총리로 가도 나라와 세계가 살았다.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서야 한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라.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불러라. "너는 모르고 찾아왔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는 끝났어. 안 가면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먼저 알고 떠나게 되어 있다. 귀신이 잘 알고 있다. 먼저 알고 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란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누가복음 10:19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다.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야. 먼저는 함께.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란다. 정말 아멘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마귀에게 무릎꿇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다가 승리를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한다.

(4)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증거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언약을 주셨다. 증거를 주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 사업에,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냥 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암송해라. 주와 함께 길 가면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나타나기만 해라, 죽어 버린다' 해야지. (웃음) 복음이 확실해지면 어두운 길을 걸어도 괜찮다. 나는 어릴 때 외딴 집에서 자랐는데 너무 외로웠다. 목사가 되었어도 혼자 있으니까 두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체험이,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괜찮다. 어떤 아이는 못된 놈에게 성주행을 한 번 당했다고 자살했다. 이겨야 한다. 못된 놈이구나 하고 끝내 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괜찮다. 승리하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전도 운동이다. 복음만 알고 있으면 어디 안 가도 된다. 합숙훈련받고 행복한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 가만히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와서 복음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아, 이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었구나.' 그런 날이 온다. 안 되는 사업이 되어지고, 단뿔던 문들이 열려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으라. 믿어야 한다. 내가 젊을 때 한 번씩 고향에 가면, 막내 동생과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평소에 자기들 괴롭히던 아이들을 보면 내 손을 꼭 잡고 주변에 발길질 시늉을 하더라. 오빠만 있어도 괜찮은데, 잔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가? 뭐가 그리 겁이 나

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지는구나' 싶어서 감사해야 한다. 주님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보고, 그런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현장의 응답을 받으라. 현장에서 승리하라. 어렵지 않다. 요셉처럼 종 하라 하면 종노릇을 잘 하라.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람도 보고 있다. 어제 보니까, 한쪽 팔이 불편한데다 부모도 없어서 할머니와 사는 아이도 힘을 내서 바리스타가 되었다고 준비하더라. 절망할 게 무엇이 있는가? 불신앙을 하고 있으면 재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드온처럼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라. 기드온에게 주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민족을 살리지 않았는가. 그 기드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증인운동이라고 한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결론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WITH,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미 확보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당연성이라고 한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다.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뭘 더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사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절대성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연성이다.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필연성이다. 결론을 알고 과정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을 알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란다. 다시 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구역의 본문 말씀처럼 죽어서 무덤 속의 마른 뼈처럼 무너져 있는 모든 영혼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공부가 안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명칭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집중력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야기해 보라.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행이 이야기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란다. 유일한 열쇠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열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둠아, 올 테면 와 봐라. 고요한 바다에 풍랑이 온다 해도,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것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일생 사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바로 알아듣도록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도록 주의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사회를 치유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흠어들어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